

충청남도 바다낚시 현황 및 관리체계 개선 방안

신우석, 운영관

충남연구원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swooseok77@cni.re.kr

- ◇ 충청남도는 최근 바다낚시 활동 인구 증가로 도내 지역 경제 및 소득이 증대되고 있으나, 전국대비 바다낚시 어선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곳으로 오점을 남기고 있음
- ◇ 그 주요 요인으로는 낚시어선 및 낚시인(어업인 및 승객)들에 대한 안전교육, 관리 및 제도 미흡에 따른 것으로 판단됨
- ◇ 따라서 지속가능한 충청남도 바다낚시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바다낚시 관련 제도 개선 및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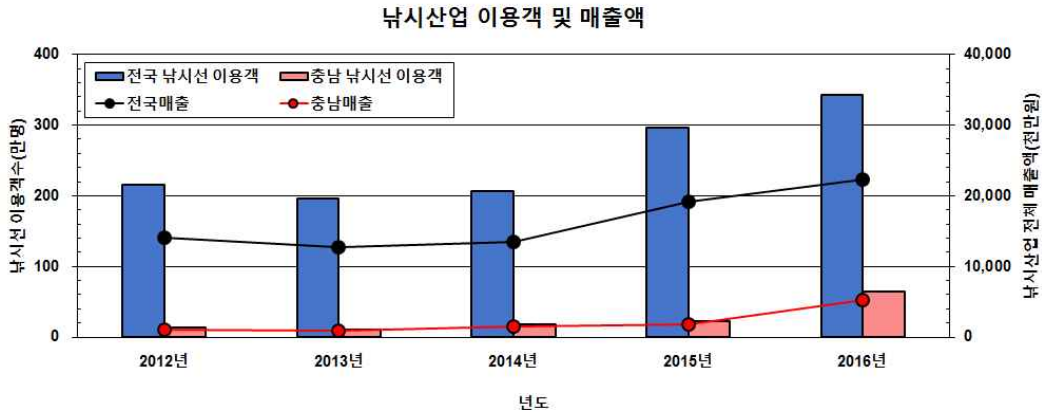
□ 충청남도 바다낚시 레저 현황

- 현재 전국적으로 바다낚시 레저가 큰 인기를 모으고 있음. 최근 5년간 (2012~2016년) 전국 및 충청남도 내 바다낚시 이용객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각각 1,274천명(37.2%↑), 507천명으로 (79.6%↑)으로 큰 폭으로 증가 추세를 보임(그림 1)
- 이러한 바다낚시 이용객 수가 증가함에 따라 2015년 대비 2016년도에는 낚시매출액*도 전국 및 충남도에서 각각 3,057천만원(13.7%↑), 3,419천만원(64.6%↑) 증가하였음(그림 1)

※ 매출액 추정¹⁾ : 낚시이용객 수 × 이용객 1인당 지역별 평균 이용요금

이용객 1인 당 지역별 평균 이용금액 (단위 : 천원)

전국	충남	전북	경남	인천	전남	경기	울산	부산	경북	강원	제주
65	83	80	77	63	63	60	53	49	46	33	28



[그림 1] 전국 및 충청남도 낙시 이용객수와 매출금액 현황

○ 2016년도 전국 낙시어선 신고 척수를 보면 4,500척으로 2012년 대비 141척(3.1%↑) 증가했음(표 1). 또한, 지역별(2016년)로는 충청남도가 1,154척으로 가장 많았고 경상남도(1,036척), 전라남도(830척)순이었으며, 충청남도는 전체 4,500척의 25.6%을 차지함

[표 1] 지역별 낙시어선 신고 현황

지역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전체	4,359	4,708	4,390	4,381	4,500
충남	1,306	1,049	1,052	1,039	1,154
전남	599	814	756	777	830
경남	907	1,080	968	964	1,036
그 외 지역 ²⁾	1,547	1,765	1,614	1,601	1,480

자료: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2017

□ 충청남도 바다낙시 관련 사고 유형

○ 현재 충청남도 내 낙시어선관리 및 사고는 평택해양경찰서(서산, 당진), 태안해양경찰서(태안), 보령(군산)해양경찰서(홍성~서천)에서 담당하고 있고 낙시어선 입·출입시 각 지방 해양경찰서에 소속된 파출소에 신고를 하고 있음(첨부 1)

○ 최근 3년간(2014년~2016년) 전국적으로 낙시어선 불법행위 단속건수³⁾는 7.6배 이상 급증했음(표 2)

1)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2016년 낙시어선업 운영현황 발표, 2017.5.26 배포

2) 그 외 지역 : 강원, 경기, 경북, 부산, 울산, 인천, 전북, 제주 낙시어선 총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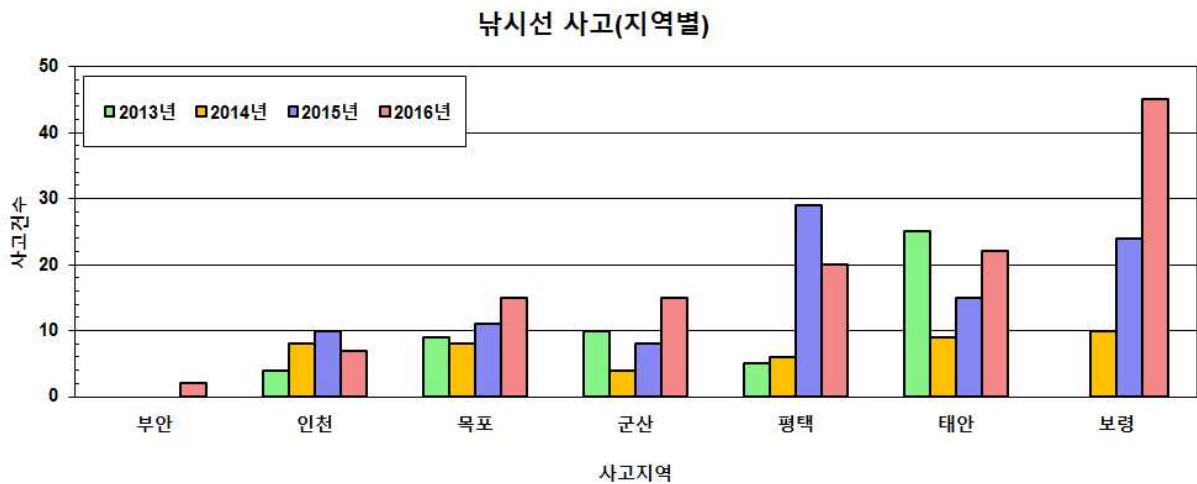
3) 2017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더불어 민주당 박완주 국회의원, 2017.10.09.

[표 2] 최근 3년간 낚시어선 불법행위 단속현황

구분	전체	미신고영업	정원초과	금지구역	음주운항	출입 미신고	기타 (과태료 등)
2014년	112	4	18	9	3	12	66
2015년	554	23	28	22	8	50	423
2016년	853	37	40	57	4	49	666

자료: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2017

- 일부 바다낚시 어선들이 통신장비를 끄거나 승객을 정원 초과 탑승시키는 등의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더 나아가 낚시어선 사고 원인별(2016년)³⁾로는 기관고장 및 추진기장애 (157건, 75.4%), 충돌(19건, 9.1%), 좌초(17건, 8.2%), 침몰(13건, 6.3%), 화재 (2건, 1.0%)이 뒤를 이었음(첨부 2)
- 지역별 낚시어선 사고(2016년)³⁾는 충남 보령이 21.6%로 가장 많았으며 충남 태안(10.6%), 경기 평택(9.6%) 등의 순으로 발생하였음(그림 2)



[그림 2] 최근 4년간 낚시어선 사고 현황(지역별: 해경서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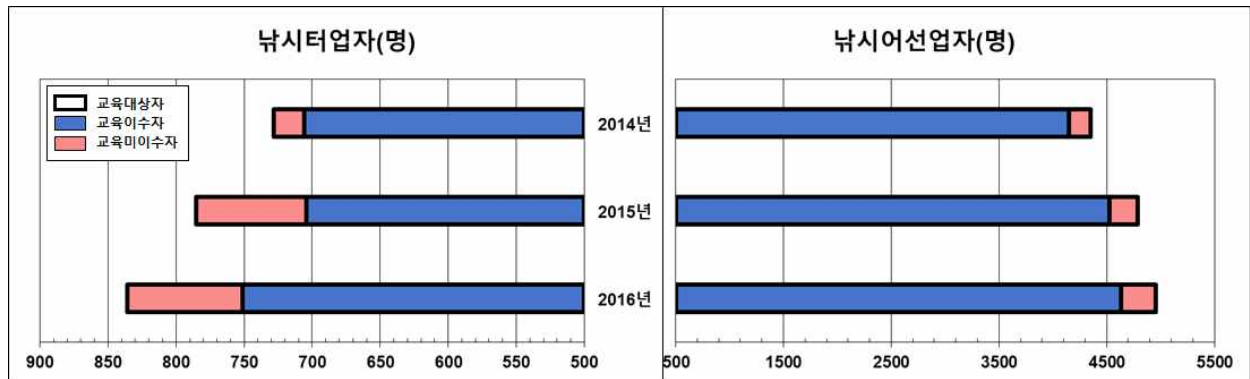
□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바다낚시를 위한 안전교육의 필요성

- 현재 낚시터업자와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제한 기준 및 금지행위와 인명구조 및 응급조치의 내용이 포함된 낚시전문교육을 매년 4시간씩 받도록 의무화⁴⁾

4) 해양수산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 47조 명시

되어 있음

- 그러나 최근 3년간(2014년~2016년) 낚시전문교육 실시현황³⁾에 따르면 전체 교육 미이수자가 2014년 4.4%, 2015년 6.2%, 2016년 7.1%로 매년 늘어나고 있음(그림 3)



[그림 3] 낚시전문교육 실시현황

□ 지속가능한 바다낚시 활동을 위한 정책제언

- 바다낚시 관련 관리 및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안)
 - 낚시진흥기본계획은 5년마다 해양수산부 장관에 의해 수립·시행
 - 충청남도 지역특성에 맞는 바다낚시 기본 실행계획 수립 제안
- 바다낚시 관련 통계자료 및 네트워크 구축
 - 충청남도 및 지방해양경찰청간 바다낚시 관련 자료공유 및 협조 시스템 구축
 - 바다낚시 진흥을 위한 민·관, 전문가 협의체 구성 및 협력체제 강화
- 낚시와 연계된 교육·안전·레저의 다목적 교육시설 연계 및 도입
 - 낚시전문교육은 낚시터업자 및 낚시어선업자만 시행 : 연 1회 교육시 4시간 의무
 - 민간 단체(낚시 협회 등)에 의한 낚시인 교육 참여 유도 방안 필요 : On·Off라인 교육 시스템 구축
- 낚시어업선 입·출항 관리, 시스템 보완 및 개선 필요
 - 현재 입·출항 제도와 함께 어획량 산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 필요

□ 첨부 1 : 충청남도 지방해양경찰서 관할 범위와 소속 항(구)



□ 첨부 2 : 최근 4년간 낚시어선 사고 현황-원인유형별5)

연도	충돌(접촉)	화재	좌초(좌주)	침몰(침수)	전복	기관고장, 추진기장애 등 기타	합계
2013년	14	1	7	5	0	50	77
2014년	9	3	10	5	0	59	86
2015년	15	8	14	8	1	160	206
2016년	19	2	17	13	0	157	208

5) 2017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박완주 국회의원